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ASEAN Community at the Heart of Asia

윤진표 · 이충열 · 최경희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 전 사단법인 한국동남아연구소장

주요저서: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연구』 (공저, 2014)

『한국 속 동남아현상』 (공저, 2012), 『동남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공저, 2011),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와 지역거버넌스』 (공저, 2010),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공저, 2010) 외 다수

이충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 교수 및 경상대학 학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현) · 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 역임

동남아시아 학회 부회장 역임 · 『동남아시아 연구』 편집위원장 역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학사)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경제학과 졸업(경제학박사)

주요 저서: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기대와 현실』

『동남아시아연구』 (2014), 『Early Warning Systems for Bank Failure and Banking Crisis in the Lao PDR, in Institutional Reform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Lao Economy』 (2014) 『ASEAN 선도 3개국의 경기변동요인과 위기 극복 정책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와 이전의 비교 분석』 외 논문 및 저서 다수

최경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선임연구원


전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선임연구원 (2012-2013)

주요저서: 『아세안 인프라 연계성 플랜과 자원마련에 관한 평가와 전망』 (2015) 『인도네시아 소비트렌드 II: 외식소비를 중심으로』

(2015), 『동남아의 헌정체제와 민주주의』 (공저, 2014)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공저, 2014),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건설과 평화체제 구축의 현황과 시사점』 (2014), 『Bali's Tourism Policy and Determinants for Korean Tourists in Selecting Bali as Tour Destination』 (2013), 『민주주의 심화과정에서 본 2009년 인도네시아 선거에 관한 연구』 (2010) 외 다수


 facebook.com/akcsns

 twitter.com/akcsns

 youtube.com/akcsns

 blog.aseankorea.org

 blog.naver.com/akcsns

 elibrary.aseankorea.org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ASEAN Community at the Heart of Asia

* 각 챕터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아세안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차례

발간사	5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최경희	6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윤진표	13
1. 2009년 청사진과 평화의 구상	15
2. 사례를 통해서 본 정치·안보 구상 실현	20
3. 비전 2025와 정치·안보공동체의 미래	27
4.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탄생과 한국	33
아세안 경제공동체 이충열	35
1. 2007년 청사진과 번영의 구상	37
2. 사례를 통해서 본 경제통합 구상 실현	48
3. 비전 2025와 경제공동체의 미래	58
4.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과 한국	6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최경희	69
1. 2009년 청사진과 진보의 구상	71
2. 사례를 통해서 본 사회·문화 통합 구상 실현	73
3. 비전 2025와 사회·문화공동체의 미래	80
4.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탄생과 한국	84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 최경희	86
한-아세안 연혁	88
참고문헌	90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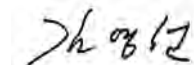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가 출범했습니다. 아세안은 창설 이후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지역통합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인구 6억 3천만 명과 국민총생산^{GDP} 2.6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지역 통합을 의미합니다.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공동체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의 탄생은 동아시아 통합을 촉진하고 세계경제의 미래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은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27년간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안보,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관계를 심화·발전시켜왔습니다. 2015년 공동체의 출범, 그리고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 비전으로의 행보는 아세안 지역 내의 평화, 번영, 진보뿐 아니라 한-아세안 협력 발전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탄생시킨 아세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목표 하에 아세안이 추구하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의 청사진은 무엇일까요. 아세안이 만들고자 하는 복원력 있고 포용적이며 조화로운 ‘사람 중심, 사람 지향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아세안센터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기념하고자, 그리고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를 펴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아세안이 제시하는 아시아의 꿈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아세안 공동체 출범의 해 2015년

세계가 주목하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가 출범했다.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다. 2015년은 공동체가 완성된 해라기 보다는 앞으로 아세안 지역 내 통합을 심화하기 위한 시작의 해라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공동체 출범 선언과 동시에 2025년까지의 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아세안은 2015년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쿠알라룸푸르 선언, “아세안 2025,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이하 아세안 2025 비전”를 통해 향후 10년의 아세안 공동체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아세안 공동체는 1967년에 탄생한 ‘아세안^{ASEAN}’에서 비롯되었다. 아세안은 냉전 체제 하에서 베트남전의 본격화, 인도차이나 공산주의 확산 등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외교장관들이 모여 ‘아세안 선언^{방콕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결성된 지역연합이다.

아세안의 설립 근거인 아세안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언에 참여한 동남아 국가들은 공산주의 진영이 주도하거나 자유주의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 ASEAN Commu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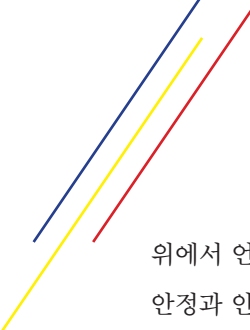


“We, the Heads of State / Government representing the people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gather here today at the 27th ASEAN Summit in Kuala Lumpur, Malaysia, to celebrate the formal establishment of the ASEAN Community 2015 and to chart the ASEAN Community Vision 2025.”

진영이 주도하는, 외부가 개입하는 지역 질서 형성을 원하지 않는다. ② 각 국가는 스스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를 만든다. ③ 아세안은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진보Progress’ 라는 세 가지 정신을 근본으로 한다. 이와 같은 아세안 선언의 정신은 2015년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의 정신으로 계승되었다.

1997년 창설 30주년을 맞은 아세안은 ‘아세안 비전 2020’을 채택하고 동남아 지역 통합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2003년 아세안은 중대한 결정을 한다. 아세안협력선언Ⅱ [Bali Concord II](#) 를 통해 2020년까지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3개의 축으로 구성된 아세안 공동체의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어 2007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2020년이 아닌 2015년에 아세안 공동체를 앞당겨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2008년에는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을 발표하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력한 지역 연대체로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아세안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개의 축, 즉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배경을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7년 창설된 아세안은 애초에 역내 정치적 안정과 안보를 위한 지역 연대였다. 이후 2003년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장관인 하산이 1976년 채택된 아세안 협력선언 I [Bali Concord I](#) 을 검토했고, 이에 정치·안보공동체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다.

경제공동체는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출범이 계기가 되었다. AFTA 발효 후 1997년 아세안이 외환위기를 맞을 때까지 AFTA 관련 실질적인 협정은 이행되지 못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은 AFTA보다 긴밀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2002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고축통 총리는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사회·문화공동체는 필리핀 대통령 아로요가 제안했다. 아로요는 테러리즘, 자연재해, 질병 확산과 같은 초국가적 문제에 주목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아세안 사무국 연설을 통해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처와 지역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후 사회·문화공동체 건설로 구체화되었다.

이렇듯 아세안은 창설 이래 48년간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 공동체를 출범하였다.

2015년을 넘어선 2025 아세안 공동체:

사람 중심적, 사람 지향적 공동체

아세안 공동체의 2025년 비전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는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지구적 변화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강조한다. 아세안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문제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경제

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차원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비전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리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의 구상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을 의미한다.

또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는 세 개의 공동체 아래에 공동의 하위 개념을 두어 공동체 간의 유기성을 강조했다. 그 하위개념이란 ‘포괄성’과 ‘복원력’, ‘사람 중심적’, 그리고 ‘사람 지향적’ 가치이다. 즉, 아세안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지향한다.

아세안 현장: 함께 돌보는 아세안 공동체

아세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세안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아세안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정부간 조직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이다. 유럽연합처럼 공동 역외 관세 등 국가가 주권의 일부를 양도하지 않고 주권 국가로서 국가 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이다.

아세안 현장에 나타난 아세안 공동체의 모토는 ‘하나의 비전One Vision, 하나의 정체성One Identity, 하나의 공동체One Community’이다. ‘하나의 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세 축으로 구성된 공동체의 유기적인 분화 관계를 의미한다. 그 목표는 ‘서로 돌봐주고 연대하고 공유하는 공동체Caring and Sharing Community’이다. ‘하나의 정체성’은 아세안 6억 3천만 명이 공유하는 아세안의 정체성이다. 아세안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코드는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다. 아세안 회원국 각자가 언어, 종교,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양하다는 인정을 전제로 공동체 통합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이며, 이런 공통된 의지와 목표로 함께 연대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비전’이다.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아세안 공동체는 왜 아시아의 꿈인가. 아세안 공동체는 20세기의 부정적인 유산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과 실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은 아세안 공동체의 세 축인 정치·안보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APSC},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그리고 사회·문화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ASCC}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에서는 2007년에 발표된 경제공동체, 2009년에 발표된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공동체 각각의 청사진 내용을 알아보고, 청사진이 발표된 후 각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실천들이 행해져 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또한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 구현하고자 하는 아세안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아세안 공동체: 2015년 출범과 아세안 비전 2025



APSC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윤진표

- 1 2009년 청사진과 평화의 구상
- 2 사례를 통해서 본 정치·안보 구상 실현
- 3 비전 2025와 정치·안보공동체의 미래
- 4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탄생과 한국





APSC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윤진표

2009년 청사진과 평화의 구상

1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아세안 공동체의 기본 토대이다. 아세안은 시작부터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조직이었다. 대부분의 지역통합이 경제 분야의 협력을 시작으로 발전하는 기능적 통합의 특징을 갖는데 비해, 아세안은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시초와 발단이 다르다. 아세안 창설을 주도했던 당시 지도자들은 자국과 동남아 역내 정치 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아세안은 정치·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1990년대 들어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대립하던 냉전 구조가 해체되면서 동남아 역내·외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반면에 인권 탄압과 종교와 민족 갈등 문제가 부상되고, 환경과 이주, 질병과 같은 초국가적인 문제들이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21세기 환경 변화는 군사 안보라는 전통적인 안보 이슈를 포괄적인 인간 안보 개념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맞게 아세안은 정치·안보공동체 건설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결정을 하였다.

정치·안보공동체 이전 아세안 역사

정치·안보공동체 구상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안보공동체 이전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아세안은 10여 년간 지속되던 캄보디아 사태를 유엔의 도움을 받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1999년까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를 연속해서 회원국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아세안은 명실공히 ‘10개 나라·1개 공동체(Ten Nations · One Community)’ 구도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충격 속에서도 아세안은 1997년 ‘아세안 비전 2020’을 제시하며 아세안 공동체 계획을 세웠고, 같은 해 아세안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참석하는 아세안+3(ASEAN Plus Three)를 출범시켜 동아시아 지역협력 구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아세안은 2003년 제9차 발리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협력선언II(Bali Concord II)’를 채택해 2020년까지 아세안을 하나의 지역공동체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등 3개 분야의 아세안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와 로드맵도 발표했다. 이 선언을 통해 아세안은 정치·안보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1976년 발리 정상회의에서 체결된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이 공동체 내의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원칙으로 활용될 것이라 밝혔다. 아세안이 발전시켜 온 주요 원칙들, 즉 내정불간섭, 주권 존중, 협의와 합의에 의한 결정, 국가와 지역의 자주권, 갈등의 평화적 해결 등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규범으로 강조되었다. 아세안 협력선언II에서는 새로운 규범의 형성, 해양안보 유지, 대량살상무기 금지, 테러와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방위 협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요 안보 협력 분야가 제시되었다. 아세안협력선언II를 통해 아세안은 하나의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이는 아세안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후 아세안은 2007년 ‘아세안 공동체 설립 가속화에 대한 세부선언’을 채택하고 아

세안 공동체 창설 시기를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겼다.

2003년 발리 정상회의 합의 이후 아세안 공동체의 전환 과정은 ‘지역의 세계(world of regions)’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2004년 비엔티엔 행동계획 2004~2010에서 ‘아세안 안보공동체 행동 계획(ASEAN Security Community Plan of Action)’을 통해 아세안은 포괄적 안보 원칙에 따라 정치·안보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세안은 공동의 적을 가정한 집단방위 또는 군사동맹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07년 제13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되고 2008년 공식 발효된 아세안 헌장을 통해 아세안은 공동체 건설을 향한 확고한 방향을 잡았다. 아세안 헌장은 역내 평화와 안보 강화를 아세안의 첫 번째 목표로 명시하고, 초국가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해 포괄적 안보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임을 선포했다. 아울러 기본 원칙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 인권과 기본권의 증진과 보호를 제시했다. 아세안이 헌장을 발효시키고 공동체 건설을 앞당겨 구축하는 것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의 영향력에 맞서 아세안이 중심이 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다.

아세안 헌장 주요내용

아세안의 체계화 및 제도화

- 법인격(legal personality) 부여
- 인권기구 설치(2009. 10 ASEAN 정부간 인권위원회 출범)
- 독립적인 분쟁해결기구 도입

지역기구로서의 아세안의 역할 강화

- 매년 아세안 정상회의의 2회 개최 / 사무국 조직 확대
- 인도네시아에 주 아세안 대한민국 상주대표부 설치 및 상주대사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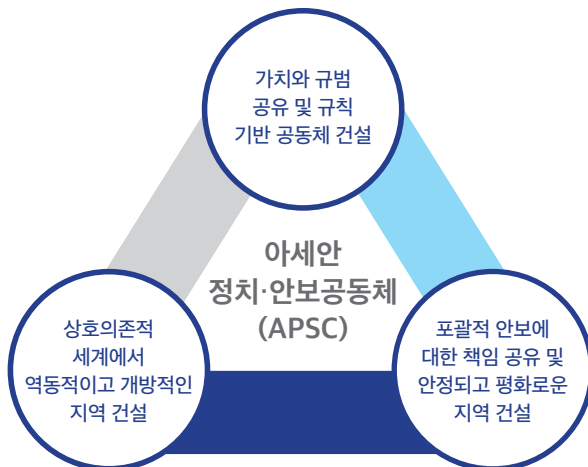
아세안 헌장의 발효와 함께 아세안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동시켰다. 아세안이 추구하는 공동체는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단위’가 아닌 ‘정부 간 단위’를 전제로 한 국가 간 협력

강화이다. 각 회원국의 독립성과 주권을 전제로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과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공동체 건설은 아세안 발전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기존의 지역주의 규칙에 기반을 둔 공동체 구축을 통해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의 기존 주요 원칙에 ‘아세안 방식’이 더해졌다. 운영 방식의 연속과 변화라는 이중적 과제를 해결한 것이다. 셋째,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분야에 걸친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아세안의 영향력과 인식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람 중심적인 아세안의 지향에 따라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

2009년 채택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Blueprint}은 아세안 현장에 제시된 주요 원칙을 계승하고, 정치·안보공동체가 지향하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세가지 목표란 첫째, 가치와 규범 공유 및 규칙 기반 공동체 건설, 둘째, 포괄적 안보에 대한 책임 공유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역 건설, 셋째,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이다.

<그림 2>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의 세 가지 목표



정치·안보공동체의 세 가지 목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가치와 규범 공유 및 규칙 기반 공동체 건설’은 아세안 현장에 표현된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의 정치 구조 및 거버넌스와 관계된 정치 발전을 지향한다는 목표이다. 규범 공유는 아세안 현장에 명시된 원칙의 공동 이행을 의미한다. 아세안 각국의 정치 발전 문제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사회적으로는 인권 문제 개선으로 귀결된다. 아세안은 각국의 정치 발전의 차이를 극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며 규칙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되 굿거버넌스의 실현, 인권과 민주주의의 촉진, 부정부패의 근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포괄적 안보에 대한 책임 공유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역 건설’은 회원국들의 단결과 노력을 통해 아세안의 역내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아세안을 통일되고 자주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신뢰 구축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와 초국경적 이슈와 같은 새롭게 떠오르는 안보 문제까지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공동 노력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셋째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은 아세안이 국제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다.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동남아 비핵지대화조약, 남중국해 행동강령선언 등 기존 제도를 정착시키고,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시킨다는 목표이다. 동남아를 둘러싼 역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간 국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렇듯 정치·안보공동체 건설 목표는 위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된다. 그중 ‘가치와 규범 공유 및 규칙 기반 공동체 건설’ 목표는 아세안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포괄적 안보 책임 공유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역 건설’ 목표는 아세안 역내 상황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상호의존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

은 동남아를 둘러싼 역외 세력과의 국제 관계 속에서 발전시켜야 하는 목표이다. 정치·안보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세 가지 차원에서의 목표 실현이 요구되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본 정치·안보 구상 실현

2

위에서 짚어본 정치·안보공동체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공유 및 규칙 기반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안보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 국내 정치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문제로 요약된다.

아세안은 2012년 아세안 인권선언을 채택했다. 아세안 차원에서 인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8년이다. 아세안은 1988년 여성인권선언 이후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를 계기로 역내 인권기구의 창설 필요성에 인식을 함께 했다. 아세안 인권기구 창설에 본격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2008년 발효된 아세안 헌장이다. 헌장에는 인권 관련 주요 원칙뿐만 아니라 아세안 역내 인권기구의 창설도 명시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아세안 정부 간 인권위원회AICHR가 설립되었다. 아세안 인권 선언은 국제 인권선언의 원칙을 수용하고, 아세안 헌장에서 언급되었던 기본 원칙 중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제외시켰다. 이는 불간섭 원칙이 아세안 회원국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 인권선언은 아세안 회원국이 갖고 있는 제약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서 개념 사용과 제정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선언 작성 과정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조였고, 인권 관련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등 시민사회의 참여는 제한되었다. 아세안 인권선언은 역내 국가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인권의 상대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의 권리는 국내법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결사의 자유는 누락되어 있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개종의 자유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러한 인권선언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공동체의 출범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인권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 인권선언을 수용하는 독립적인 아세안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 내용 또한 정치·안보공동체 청사진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도 인권 문제는 정치·안보공동체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사용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자리 잡았다. 아세안 회원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나라마다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아세안은 정치체제부터 정치문화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브루나이와 태국처럼 군주제 문화가 강한 나라부터 베트남과 라오스처럼 사회주의 일당 체제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처럼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부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같이 의원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까지 분포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 체제에서 벗어나 정권 교체를 통한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독립 이후 한 번도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 미얀마는 최근 정치 개혁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으며, 태국은 2006년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개입이 일상화되었다. 아시아 민주화의 물결을 제일 먼저 일으켰던 필리핀은 정체된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캄보디아는 일인 지배 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실시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 참여 관련 기본권이 보장되고, 성숙하게 행동하는 시민 사회가 있어야 한다. 정치·안보공동체가 제시한 민주주의 실현 목표는 아세안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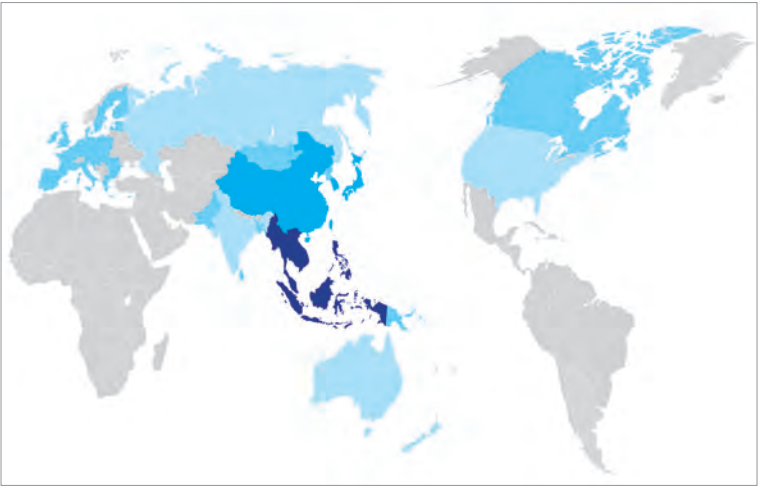
‘포괄적 안보를 위한 책임 공유 및 안정된 지역 건설’이라는 정치·안보 공동체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이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1992년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어 1994년 7월 방콕에서 제1차 각료회의가 열리면서 시작되었다. 매년 개최되는 포럼은 지역 강대국 간 관계, 비확산 문제, 대테러 문제, 초국가적 범죄와 남중국해와 한반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유일이자 최대의 다자간 정치·안보 협의체로 자리 잡았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2001년 예방외교* 개념을 채택했지만 예방외교를 수행하는 단계로는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27개국에 달하는 회원국의 규모와 회원국들의 정치·안보 상황이 매우 상이한 아시아적 환경 때문이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회원국 간 신뢰 구축과 안보 대화 채널로 기능함으로써 비록 제한적이지만 일부 분야, 특히 재난 대응과 구조 분야에서 기능적 협력을 이끌었다.

*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 분쟁이 폭력화하기 전에 악화·확대를 막고 전쟁이나 무력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국, 국제기구, NGO 등이 취하는 행동의 총칭.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중심으로 하는 비(非)강제적·비전투적 활동으로서 조기대응에 중점을 둔다.

<그림 3>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회원국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아세안이 해야 한다는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 개념은 아세안의 상대적 약세로 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아세안 공동의 리더십이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일국의 영향력 행사를 막고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포괄적 안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아세안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세안의 비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은 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동등한 행위자들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정치·안보공동체 출범으로 이러한 아세

안의 집단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아세안 리더십이 지속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 간의 단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대국과 함께 하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은 단결된 아세안의 리더십을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남중국해 이슈*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이라는 정치·안보공동체의 제3의 목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주목해야 할 국제적인 현안은 남중국해(South China Sea) 이슈이다. 남중국해는 말라카해협을 거쳐 서태평양 지역으로 향하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국제 해상로이다. 수에즈 운하의 3배, 파나마 운하의 2배에 달하는 물동량이 움직이며 해저에는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가 묻혀 있다고 한다. 남중국해에는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와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가 흩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중국해는 오래전부터 관련 국가 간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아세안은 1992년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권 주장이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것을 우려해 ‘남중국해 선언(Declaration on South China Sea)’을 발표했다. 선언을 통해 아세안은 관련국들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고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2002년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의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행동에 관한 선언’으로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으나, 2009년 이후 중국의 무력시위 등 군사행동이 증가하면서 다시 남중국해 이슈가 동남아 안보 문제의 핵으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내륙의 국경분쟁과 비교해 해양 영유권 분쟁에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2010년 중국 총리 원자바오는 유엔 연설에서 “주권과 국가 통합 및 영토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은 어떤 양

* 이 부분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기술한 것으로서 한-아세안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며, 분쟁 당사국 어느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

보와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역의 상호의존성보다 중국의 핵심 국익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배경은 영토주권에 대한 집착, 중화민족주의의 고취,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부상의 선행적인 실행 의지, 미국의 대중 포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는 다양한 분석이 있다. 중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래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남중국해 이슈에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상대 국가들인 일본, 베트남, 필리핀이 더욱 미국과 밀착하려 한다는 점이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그림 4>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해양관할권 주장 및 실효적 지배 현황 및 분쟁 지역



* 본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레이션 지도로, 공식 지도가 아님

남중국해 이슈는 정치·안보공동체의 직접적인 도전이자 최대의 과제이기도 하다. 아세안 회원국 간 남중국해 이슈를 둘러싼 이해 충돌은 아

세안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2년 캄보디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행할 때 아세안정상회의 최초로 의장성명서가 도출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2015년 11월 개최된 제27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은 남중국해 이슈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아세안 지도자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in and over-flight above)’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일부 아세안 지도자들이 지적한 이 해역에서의 ‘군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과 아세안이 합의했던 기존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DOC)’을 준수하고, 현재 중국과 협상 중인 ‘남중국해 행동 규범(Code of Conduct in the South China Sea, COC)’을 조속한 시일 내 제정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남중국해 이슈는 이렇듯 여러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인 동시에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가 피할 수 없이 풀어야 하는 숙제이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남중국해 이슈를 당면한 최우선 과제로 인지하고, 관련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 협력해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비전 2025와 정치·안보공동체의 미래

3



“Our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y 2025 shall be a united, inclusive and resilient community. Our peoples shall live in a safe, harmonious and secure environment, embrace the values of tolerance and moderation as well as uphold ASEAN fundamental principles, shared values and norms. ASEAN shall remain cohesive, responsive and relevant in addressing challenges to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play a central role in shaping the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while deepening our engagement with external parties and contributing collectively to global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는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아세안이 밝혀온 선언, 조약, 협약, 성명서 등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는 공동체가 공식 출범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평화적이고 안정적이며 유연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향후 비전으로 아세안은 첫째, 다양한 역내 및 역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구촌의 미래 지향적 지역으로서 아세안 중심성을 지켜나가는 아세안 공동체 건설, 둘째, 생기 있고 지속 가능하고 고도로 통합된 경제로서 아세안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강력히 노력하는 아세안 공동체 건설, 셋째, 유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와 아세안 공동체 건설 노력의 병행을 제시하였다. 이와같은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아세안 사무국을 포함한 아세안 관련 기구와 조직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증대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그림 5>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연대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총론에서 정치·안보공동체는 9가지 미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 ①규칙에 기반을 둔 공동체 ②포용적이고 대응하는 공동체 ③관용과 중용을 아우르는 공동체 ④포괄적 안보를 지향하는 공동체 ⑤평화적 수단으로 분쟁 해결하는 공동체 ⑥비핵지대화 공동체 ⑦해양안보와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체 ⑧아세안 중심성 위에 단결을 강화하는 공동체 ⑨대화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공동체이다. 규칙에 기반한 공동체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 및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는 공동체이다. 포용적이고 대응하는 공동체는 인권과 기본권을 자유롭게 향유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굿거버넌스,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정의로운 환경을 이루는 공동체를 말한다. 관용과 중용을 아우르는 공동체는 타종교와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속의 통합’ 정신이 확산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배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포괄적 안보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초국가적 범죄 같은 비전통 안보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동체이다.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공동체는 폭력적인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며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하면서 예방 외교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비핵지대화 공동체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보유 및 확산을 금지하고, 군비 감축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지향한다. 해양안보와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체는 아세안이 주도하여 국제 해양법 원칙을 준수하고 해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 아세안 중심성 아래 단결을 강화하는 공동체는 아세안이 지역 안보를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화 상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공동체는 동남아 역외 세력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 관심사를 함께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를 말한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비전 2025의 9가지 세분화된 목표는 다시 4가지 하위 공동체 개념으로 재구성된다. 그 4가지 하위 공동체 개념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 기반, 사람 지향 및 사람 중심의 공동체Rule-Based, People-Oriented, People-Centered Community, 둘째,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공동체Peaceful, Secured and Stable Region, 셋째, 역동적인 아세안 중심성과 역외와 협력하는 아세안ASEAN Centrality in a Dynamic and Outward-Looking Region, 넷째, 조직과 제도적 능력을 갖춘 공동체Strengthened ASEAN Institutional Capacity and Presence이다.

<그림 6>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비전 2025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목표 9가지와 하위 개념 4가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칙 기반, 사람 지향 및 사람 중심의 공동체’는 아세안의 기본 원칙과 국제법을 준수할 것, 가치와 규범을 공유할 것과 민주주의, 굿거버넌스,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반부패 활동을 강화할 것, 화합과 안정의 힘으로서 관용과 중용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평화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제시한다. 이는 9가지 목표 중 ①, ②, ③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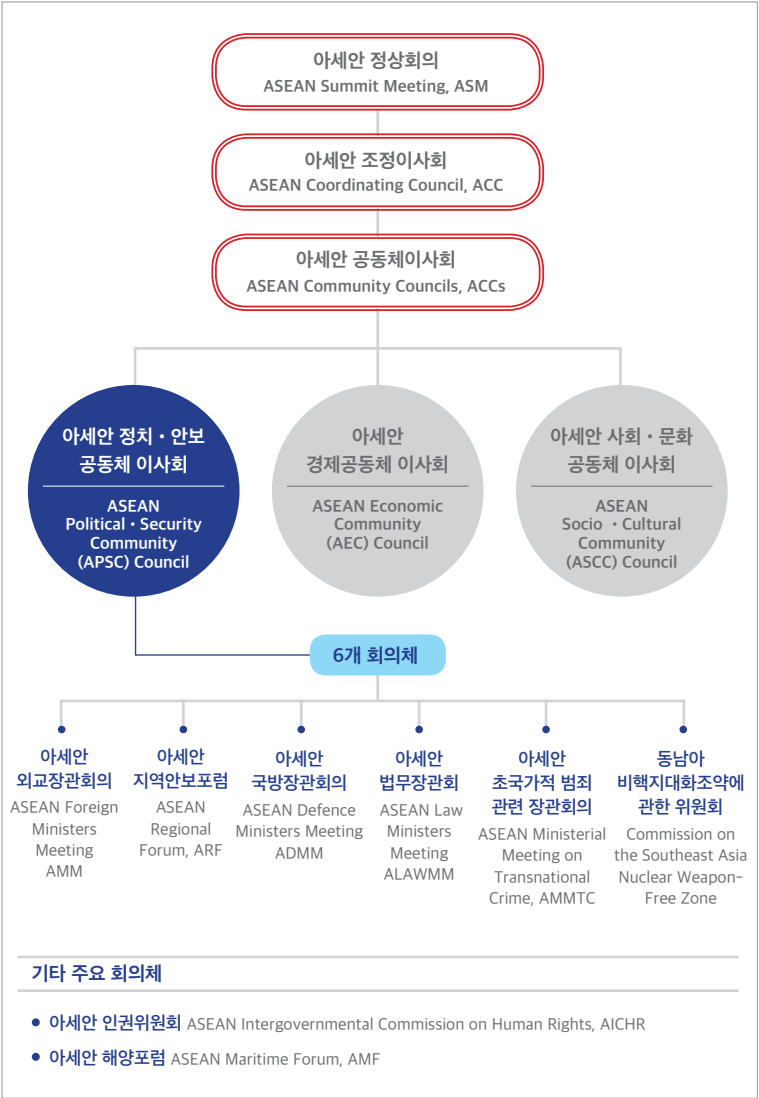
둘째, ‘평화롭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공동체’는 대내외적 도전을 다룰 아세안의 능력과 관련 조직을 강화할 것, 위기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 초국가적 범죄와 자연재해 등 비전통 안보 이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능력을 증강시킬 것,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 유지 활동 및 예방 외교 활동을 증대시킬 것, 비핵지대화와 대량살상무기 금지 및 군비 축소와 비확산, 남중국해 이슈 등 역외 세력들과 해양 안보 및 해양 협력을 확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9가지 목표 중 ④, ⑤, ⑥, ⑦을 포괄한다.

셋째, ‘역외와 협력하는 역동적인 미래지향적 공동체’는 아세안 중심성에 의한 지역 건설과 아세안의 통합을 강화할 것과 발전을 위한 대화 상대국들과의 건설적 협력을 심화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9가지 목표 중 ⑧, 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전 2025는 아세안의 제도적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아세안 정상회의, 부문별 공동체협의회, 관련 장관급 회의 및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 등 회의체 능력을 키우고, 아세안 관련 산하 기구와 아세안 사무국 등 아세안의 행정 기구의 효율성을 높여 아세안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2015년 출범한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는 2025년까지 건설할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1967년 아세안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발전시키며 난관을 극복했듯이, 아세안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지역 협력 모델을 또 다른 차원에서 완성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그림 7>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주요 회의체 및 구성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탄생과 한국

4

한국과 아세안은 2009년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6월 1~2일, 제주를 개최하였다. 2010년 한-아세안은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과 ‘행동계획 2011~2015’을 발표했다.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관계의 협력강화를 의미한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비전통 안보분야와 다자안보협의체를 포함한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명확히하였다. 2012년에는 한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아세안 대표부를 설립함으로써 아세안상주대표부위원회CPR의 공식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2014년 한국과 아세안은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12월 11~12일, 부산}. 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안보대화체제 설립 및 다자안보채널을 통한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협력과 아세안의 중심성 지지, 한국의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 지지 및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인권 및 테러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였다. 이어 2015년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2016~2020’을 채택하고 2014년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협력 사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가치와 규범 공유 및 규칙 기반 공동체 건설’, ‘포괄적 안보에 대한 책임 공유 및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역 건설’,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지역 건설’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은 지역차원의 전통적 정치·안보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자연재해, 전염병 등 초국경

적, 비전통적 정치·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하고 대처해나가는 상생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의 발전과정에서 아세안은 한반도 평화의 조력자, 한국 경제 발전의 동반자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협력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8> 정치외교·안보 분야 한-아세안 협력

정치· 외교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외교관계 수립 ※ 북한도 10개국과 수교 (동시 수교) •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2010)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설립(2010)
주요 양자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정상회의 : 1997년 아세안 창설 30주년 계기 아세안 + 3 정상회의 및 별도의 양자 정상회의 개최·정례화 • 한-아세안 Dialogue : 1989년 부분대화관계 수립, 현재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의 한-아세안 협력관계 점검 및 협력증진을 논의하는 차관보급 협의체 ※ 제18차 한-아세안 Dialogue(2014.12, 부산)계기 안보 전담 대화를 별도 세션으로 개최. 의제는 지역안보 등 전통적 안보 이슈 뿐 아니라 테러, 식량안보, 에너지, 재난관리 등 비전통 안보 이슈를 포함 •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 1979년부터 확대외교장관회의의 (PMC) 정례화. 한국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개최
주요 다자 협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3(한·중·일) (1997~ 연례 개최)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2005~ 연례 개최)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1994~ 연례 개최) ※ 북한은 2000년 가입, UN 5개 상임이사국 모두 가입 회원국 •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2010년 발족, 2013년부터 매 2년 개최) • 기타 ASEM, APEC 등

AEC

아세안 경제공동체 이충열

- 1 2007년 청사진과 번영의 구상
- 2 사례를 통해서 본 경제통합 구상 실현
- 3 비전 2025와 경제공동체의 미래
- 4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과 한국





AEC

아세안 경제공동체

이충열

2007년 청사진과 번영의 구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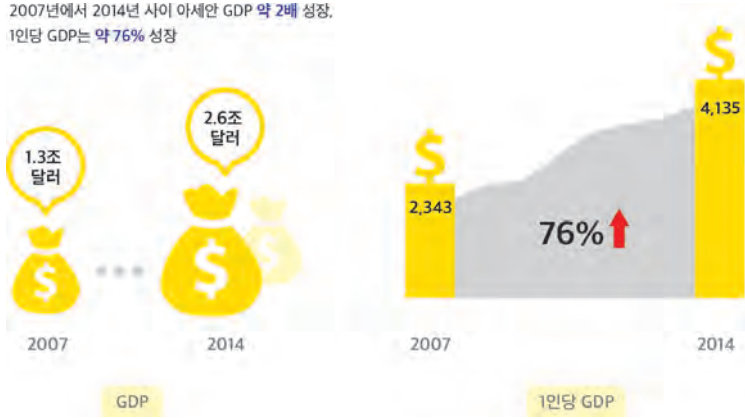
아세안은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한 대륙부와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중심의 도서부로 구성된 지역으로 10개국 약 6.3억 명 세계 인구의 8.7%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GDP는 2014년 기준 2.6조 달러 세계 총생산의 3.3%로 한국의 약 1.8배이며, 1인당 GDP는 4,1353 달러로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아세안 회원국 경제구조와 규모의 차이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국가별로 매우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아세안 전체 평균 1인당 GDP는 세계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에 해당되지만 국가 간 편차는 매우 크다. 아세안의 최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014년 56,286 달러인 반면 최저소득 국가인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각각 1,227 달러와 1,080 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국가별 경제 규모에서 인구가 2억 4천8백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의 GDP는 9,125억 달러인 반면, 인구가 각각 677만과 40만인 라오스와 브루나이의 GDP는 117억 달러와 171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림 9> 아세안 경제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아세안 GDP 약 2배 성장.
1인당 GDP는 약 76% 성장



아세안 각국은 소득수준 및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싱가포르의 금융과 서비스업이 매우 강한 반면에 미얀마와 필리핀에서는 농산물 및 천연자원 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 산업은 말레이시아가, 자동차 산업은 태국이 강하며, 의류 및 신발 산업은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세안 국가들은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고소득 국가인 싱가포르는 국제 금융시장을 보유하고 아세안 각국의 투자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투자자들이 아세안 국가에 투자할 때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아세안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싱가포르의 투자액을 받아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여 아세안 역내 생산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치열한 경쟁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쌀 수출국인 태국과 베트남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저소득 국가 역시 선진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한다. 상호 간의 부존자원이 비슷하고 1인당 소득이 비슷한 이들

지역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져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세안은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소득 4,000 달러 수준의 개도국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계 최고소득 수준의 국가와 최빈국이 모두 포함되는 지역으로 상호 경쟁하고 또한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0> 아세안 각국의 GDP(단위: 10억 달러, 2014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5

<그림 11> 1인당 소득(단위: 달러, 2014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5

경제공동체 구상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경제구조와 특징을 갖는 동남아 10개 국가가 하나의 경제공동체 구상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경제공동체는 아세

안 공동체의 3개 기둥 중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이들 10개국이 상호 경쟁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경제공동체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형태로 각국 간 경제 협력을 이루어야 하는가는 2007년 채택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청사진은 아세안의 협력 구조를 ①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 기반 구축, ②경쟁력 높은 경제지대, ③균형 경제발전, ④세계 경제로의 통합 등 4개의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 같은 4개 목표의 부분별 경제통합을 추진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 구축은 상품 및 서비스,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보다 더 자유로운 *freer* 자본의 이동,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관세 인하, 아세안 단일 창구 *ASEAN Single Window* 구축을 통한 거래 비용 감소, 서비스 자유화 추진 및 아세안 투자협정 추진 등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경쟁력 높은 경제지대는 경쟁,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사회 기반 시설 개량, 조세제도, 전자상거래 *e-commerce*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 경제발전은 아세안 국가 내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하여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IAI*’를 추진하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경제로의 통합은 아세안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세계경제와의 협력 및 교류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세계 생산 공급망 *Supply chain*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이 한국과 중국, 미국이나 중동 국가 같은 역외 국가와 새롭게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과 타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림 12> AEC 스코어카드 이행 현황



자료 :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 Progress and Key Achievements,
The ASEAN Secretariat, Jakarta

아세안은 4대 추진 목표에 대해 2년 단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시행하고 진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스코어카드(Scorecard) 제도를 도입, 506개 이행목표 중 현재 469개 목표를 완료해 아세안경제통합 진행률은 92.7%에 달함(2015.10.31. 기준)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추진

- 2000년 11월 제4차 비공식 정상회의시 아세안 선·후발국간 경제 격차 해소를 골자로 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를 추진키로 합의
- 2002년 11월 제8차 정상회의에서 IAI 작업계획(2002~2008)을 승인, 인프라·인적자원 개발·정보통신 기술·지역경제 통합 등 4개 분야 총 134개 사업 추진
- 2009년 3월 제14차 정상회의에서 2009~2015년간 IAI 2단계 실행계획 승인
- 2015 아세안 공동체 실현에 있어 개발 격차 해소의 중요성 강조
- IAI 3단계 실행계획 2016년 채택 예정

실질적 경제통합 운영 원리의 예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경제 효과와 분업의 효과 및 각종 거래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얻기 위해서다. 규모의 경제 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보다 커질수록 상품 생산의 평균비용, 즉 단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론으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증명이 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하나의 옷을 생산할 때보다 백 개, 천 개 생산할 경우 개당 생산 비용은 더 줄어든다. 이때 생산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분업이다. 한 명의 노동자가 옷 생산에 필요한 공정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각 공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 비용 절감 효과로 상품이 지역이나 나라를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줄어 들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아세안의 예에서 찾아보자. 먼저 단일 시장과 생산 기반은 아세안 10개국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생산 및 소비를 마치 하나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품무역 자유화, 서비스무역 자유화, 자본과 투자의 자유화, 인력 이동의 자유화 및 농수산, 식품, 임업 협력의 자유화 등을 의미한다.

상품무역 자유화의 예로 베트남 남부 대도시인 호치민 시티에서 생산된 티셔츠를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거주하는 베트남 소비자와 캄보디아의 프놈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과정을 비교해 보자. 하노이의 베트남 사람은 동네 옷가게를 통하여 호치민 시티에서 생산된 티셔츠를 구입하면 된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베트남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하노이의 옷가게는 이 티셔츠를 호치민 시티에 있는 공장에서 구입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티셔츠는 기차나 트럭을 통하여 약 1,700km 정도를 3~4일에 걸쳐서 이동하게 된다.

반면 호치민 시티에서 285km 떨어진 이웃나라 캄보디아 프놈펜의 소

비자가 티셔츠를 구입하는 경로는 조금 다르다. 티셔츠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국경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라는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 베트남 기업이 이 제품을 캄보디아로 수출할 때 기업은 베트남 정부는 물론 캄보디아 정부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후 제품은 양국 국경의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이 요구되고, 때에 따라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일이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한다. 근거리에는 프놈펜의 소비자가 단순히 국경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더 멀리 있는 하노이의 소비자보다 더 늦게, 더 비싸게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단일 시장이 이루어지면 공동체 내의 국가 간 거래는 매우 편리해진다. 프놈펜의 소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입할 때 마치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것과 유사한 경로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수출과 수입은 이루어지나 관련된 각종 인허가 과정이 간편해지고, 관세가 없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프놈펜의 소비자는 하노이의 소비자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더 싸게 호치민 시티에서 만든 티셔츠를 사서 입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자본 및 투자의 자유화를 들 수 있다. 상대적 부국인 싱가포르의 투자가가 싱가포르 내의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와 태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를 각각 고려해 보자. 싱가포르의 투자가가 자국 내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돈을 갖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 투자가가 태국의 은행에 예금하려고 하면 이야기는 조금 복잡해진다. 대체로 싱가포르는 고소득 국가로 저축이 많아 여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반면, 태국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경제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의 투자가가 태국 은행에 예금을 하면 자국에 투자할 경우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태국은 이 자금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양쪽 다 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때 이 싱가포르 투자가가 태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싱가포르의 투자가가 직접 돈을 갖고 태국에 가서 태국의 은행에 예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갖고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각국의 금융 규제에 걸려 일이 복잡해진다.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나라도 있고 신고를 해야 하는 나라도 있다. 애초에 은행에 예금을 하자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상당히 불편한 일이다. 이때 태국 은행이 싱가포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 일이 좀 쉬워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태국의 은행이 싱가포르에 지점을 내려면 싱가포르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 금융 감독기관들은 자국의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은행의 수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때문에 각국의 은행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약 아세안 역내에서 자본 및 투자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기준을 맞추면 상대적으로 쉽게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내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 금융 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궁극적으로 각 은행 간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고 아세안에는 보다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경우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그 밖에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서비스무역 자유화나 인력 이동의 자유화 및 농수산, 식품, 임업 협력의 자유화 등을 포함한다. 경제공동체 실현으로 아세안 각국의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려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아세안의 기업들은 기존의 국내 경쟁 체계가 아닌 아세안 역내 경쟁 체계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보다 치열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특정 국가 내에서 독과점 효과를 누리던 기업들은 새로운 경쟁 환경에 놓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축은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보다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 역내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이 개선되어 타 지역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아세안의 경제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추진의 배경

아세안이 2000년대 들어 경제통합 혹은 경제공동체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안정이다. 아세안 역내에 정치적인 충돌이나 불안이 크게 해소되면서 각국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게 되었다. 태국을 제외한 모든 아세안 국가들은 짧게는 백 년, 길게는 4백 년 동안 유럽의 식민지를 거쳤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을 마치면서 독립한 국가들이다. 이들은 새롭게 현대국가의 틀을 다지는 동시에 냉전시대, 자유주의국가와 공산주의국가 간의 이데올로기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의 안위와 정치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1950년부터 1980년대를 거쳤다.

당시 이데올로기 싸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1960~70년대 벌어진 베트남 전쟁이다. 이 기간 동안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은 치열한 전쟁을 벌였고, 상호 간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보았다.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 싸움은 막을 내렸고, 이들 국가들은 경제 부흥을 통한 국가 발전을 적

극적으로 추진했다. 베트남과 라오스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고, 캄보디아도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은 기존의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역내 국가들이 아세안에 모두 가입하고 정치적인 불안이 줄어들면서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이들은 경제통합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깨닫고, 이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13> 아세안 경제공동체 연대표



둘째, 중국의 부상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여 2014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부상하면서 중국 주변의 아세안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위협을 느꼈고, 경제협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들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주요 방법이 바로 아세안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중국이 12억 인구의 거대한 대륙으로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아세안 각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셋째, 유럽 경제통합의 효과이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1999년에는 유로화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일부 국가의 경제협력에서 시작된 유럽이 통화 통합까지 이루어 내는 것을 목격한 아세안 국가들은 역내 경제통합이 각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는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아세안 각국은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경험을 연구하고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넷째, 1997년에 닥친 동아시아 경제 위기이다. 동아시아 금융 위기는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인 및 일반인에게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시작된 금융 위기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으로 전염되면서 역내 금융 위기로 발전하였다. 과거 아세안 각국은 개별 국가의 금융시장은 주변 국가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금융 위기가 주변국으로 빠르게 전염되고 그 효과도 매우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은 금융 위기를 극복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 역시 안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각국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상호 협력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발전하였다.

아세안+3(APT) 체제에서의 금융협력, CMIM과 AMRO

- 1997~1998년 아시아 지역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신설. 2000년에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2차 APT 재무장관회의에서 단기 유동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골자로 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체제 출범.
- 이어 2007년 CMI의 다자화 원칙이 합의됨에 따라 2010년에 CMI 다자화 체제(CMI-Multilateralization, CMIM)로 전환. CMIM 체제하에서 공동기금은 종전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증가. 부담 비율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32%, 한국이 16%로 한·중·일 3국이 전체의 80%, 아세안은 20% 부담.
- CMIM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분석과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아세안+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를 2011년 싱가포르에 설치한 데 이어 2016년 3월 국제기구로 전환.

사례를 통해서 본 경제통합 구상 실현

2

위에서 짚어본 경제공동체의 네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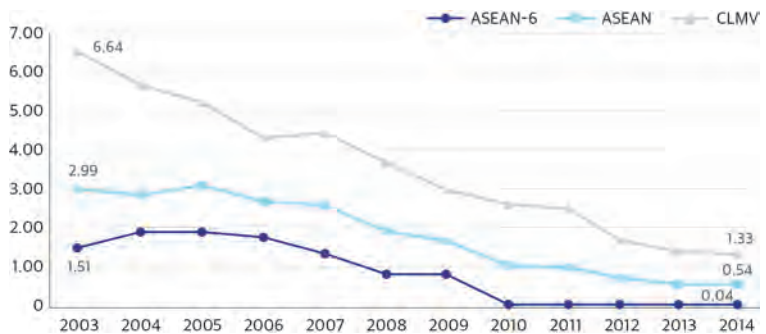
관세율 인하

2015년 말 아세안 인구 6억 3천만 명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가 탄생했다. 상품 거래 활성화를 시작으로 각종 서비스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이 지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기초하여 2015년에 출범한 경제공동체가 2007년에 발표한 ‘청사진’이 제시한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이 2015년까지 아세안 역내 통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표준화하여 네트워크로 연결하기로 하

였던 아세안 싱글윈도우는 일부 국가 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만 시작되었을 뿐,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 통관 시스템 전산화를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세안 은행 시장의 통합 역시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의 은행들은 주변국으로 진출할 때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아세안 역내 투자자들은 주변국 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 또한 각종 제도 역시 통일화되지 않아 실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다.

아세안이 이룬 경제적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 간의 관세율이 크게 하락하였고, 상호 무역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14>와 같이, 아세안 국가의 역내 관세율은 아세안 공동체 탄생이 발표되었던 2003년, 아세안 경제 상위 6개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들은 1.51%, 나머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6.64%, 전체 평균 2.99%를 보여주었지만, 2010년부터 아세안 6 국가들 사이에는 관세율이 0.04%로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다. CLMV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2014년에는 1.33%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림 14> 아세안 국가의 역내 관세율(단위: %)



자료: ASEAN,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4, July, 2015

<그림 15> 아세안 세관 통합

	<p>아세안 자체인증시스템 ASEAN Self-Certification</p> <p>인증받은 수출 기관에서 상품을 수출할 시, 상품에 대한 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아세안 무역협정(ATIGA)의 요건에 맞는 상품임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p>
	<p>아세안 관세코드 AHTN</p> <p>확일적이고 일관된 아세안 역내 상품 분류 시스템</p>
	<p>아세안 세관경유 시스템 ACTS</p> <p>아세안 무역업자들이 상품을 수출, 수입할 때 1회의 세관통과로 모든 세관이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p>
	<p>아세안 싱글윈도우 ASW</p> <p>아세안 역내 통관단일창구시스템. 싱글윈도우가 구축되면 무역업체는 싱글윈도우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일괄 처리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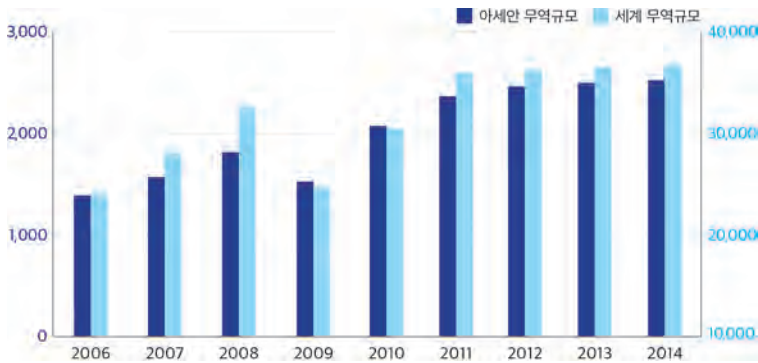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협력 프로젝트

주요국들의 증권시장이 서로 연결되어 역내 투자자들이 주변국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역내 주변국에 대한 송금 시스템도 크게 개선되었고, 소매 결제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한 매년 수천 건의 각종 회의가 소집되어 다양한 방면에서 아세안의 경제 관련 협력이 증진되고 있다. 미얀마가 개방되고,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 발전이 촉진된 것도 사실 경제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나온 간접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메콩 개발과 같이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 역시 경제공동체 구축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경제공동체 구상은 아세안 역내 무역 및 서비스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상호 협력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노력은 아세안의 무역 및 경제 성장률 추이와 미래 예측지에 잘 나타난다.

교역량과 해외직접투자, 경제성장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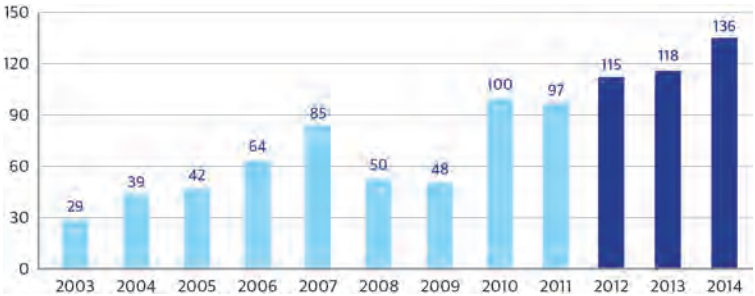
<그림 16>은 아세안의 전체 교역량 및 세계 교역량 대비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전체 교역량은 경제공동체 건설이 추진되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고 세계 전체 교역량 대비 비율 또한 2006년의 5.6%에서 2014년 6.8%로 증가하였다. 아세안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경제공동체 건설이 추진되면서 아세안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된 까닭이다. <그림 17>과 같이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3년에 293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4배나 증가한 136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아세안의 무역 증대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는 아세안이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림 18>과 같이 아세안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6년 이후 세계 금융 위기가 닥친 2009년을 제외하고는 5%대를 지속했는데, <그림 19>와 같이 2000년 이후 십여 년에 걸쳐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아세안과 중국, 그리고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 불과하다.

<그림 16> 아세안의 전체 교역량 및 세계 교역량 비율(단위: 10억 달러)



자료: ASEAN,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4, July 20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그림 17> 아세안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단위: 1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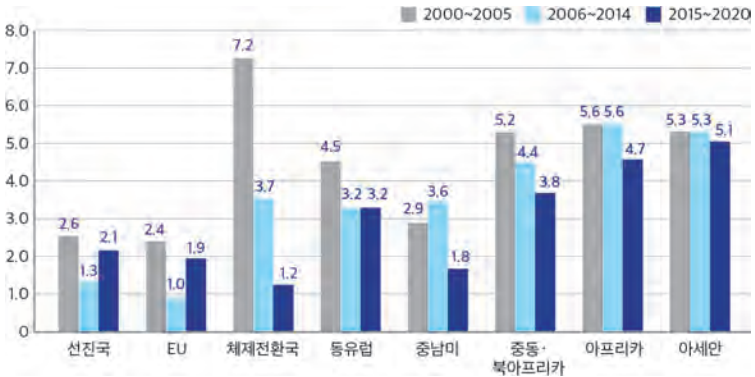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그림 18> 아세안의 경제성장률 추이(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그림 19> 아세안과 타지역의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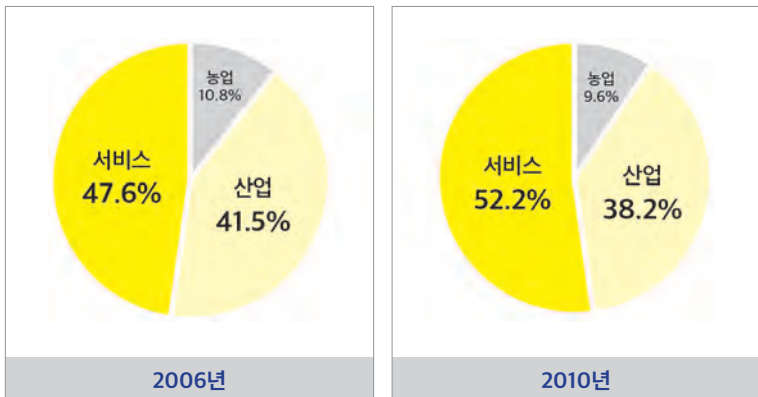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아세안 산업구조의 고도화

아세안의 높은 경제성장은 아세안의 산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20>과 같이 아세안에서 생산성이 낮은 농업의 비중이 2006년 10.8%에서 2013년 9.6%로 하락하였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47.6%에서 52.2%로 상승하여 보다 생산성이 높은 비농업 분야로의 산업구조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아세안의 교역 증대 및 서비스 거래 활성화 효과는 향후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아세안이 이룩한 것은 주로 제도적인 변화로,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는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이다. IMF 예측치에 따르면 2015~2020년 전 세계 지역별 경제성장률에서 아세안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그러한 아세안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림 20> 아세안의 산업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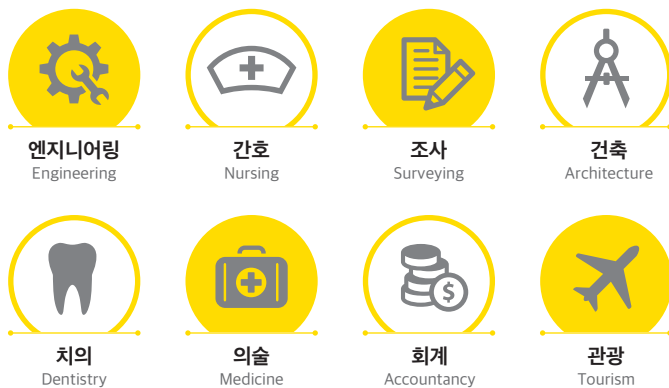
자료: ASEAN,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4, July 20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5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아세안 공동체는 현재 숙련노동의 8가지 업종-기술자, 건축, 관광, 간호, 의학 및 치의학, 조사 관련 업무, 회계-만 자유로운 노동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업종별로 시행 상황은 다르다. 기술자와 건축 업종은 개별 국가 수준뿐만 아니라 아세안 수준의 관련 전문가 위원회로부터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반면 간호 및 의료 용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가별 등록으로 충분하며, 아세안 산하 위원회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8개 업종조차도 자격증 인증과 관련하여 아직 충분히 합의된 제도가 없다. 숙련노동 8가지 업종 선정에 있어서도 아세안 내 경제 주도 국가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노동시장 요구에 맞춰져 있다.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어려운 문제다.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개발 격차로 인해 존재하는 노동의 질의 차이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고 아세안 연계성 플랜들이 실현되어 개발 격차의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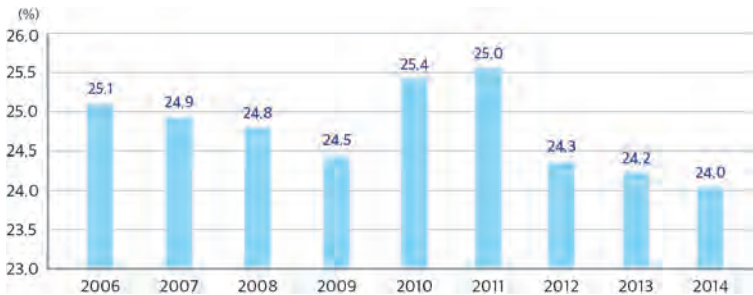
<그림 21> 아세안 역내 자유 이동이 가능한 8가지 숙련 노동



현재까지 진행된 경제통합의 한계들

이러한 아세안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공동체의 성과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아래 <그림 22>에서 보이듯이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율은 최근 계속하여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아세안 전체 교역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1%이었으나, 2010년 25.4%를 기록한 후 계속 하락하여 2014년에는 24.1%를 기록하였다. 아세안이 경제공동체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제 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는 이 기간 동안 아세안 역내 무역보다는 주변국인 한국이나 중국, 일본과의 무역이 증가하였다는 의미이다. 즉, 비록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탄생 과정에서 대외 개방도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것이 효과는 있었지만, 이것이 아세안 내부의 무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림 22> 아세안의 역내 교역 비율(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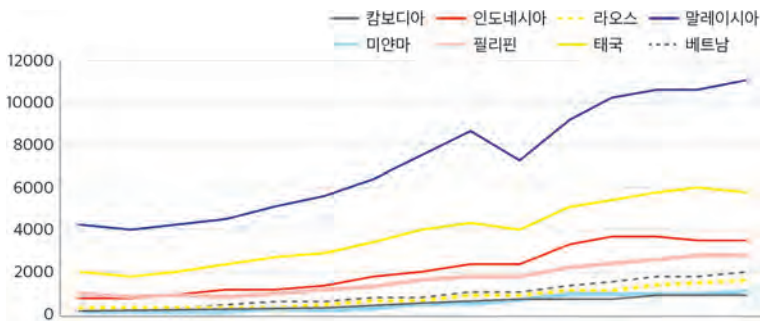


자료: ASEAN,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4, July 2015

소득 격차 해소에도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림 23>은 아세안 8개국의 1인당 GDP 추이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각각 1만 달러 수준과 5천 달러 수준을 초과하였지만, 아직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2천 달러 미만의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 그림에 포함되지 않은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은 2014년에 5만6천 달러에 이르러 과

연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이 이 지역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그리고 아세안의 발전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총괄하게 되는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23> 아세안 각국의 1인당 GDP 추이(단위: 미 달러)



주: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 제외,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5

경제공동체 구축의 구조적 어려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은 경제공동체 출범을 통해 여러 가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아세안이 직면한 현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제공동체의 구조적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의 상당수가 저소득 국가라는 점이다. 경제공동체 구축은 10개국이 하나의 공통된 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통된 제도를 구축하려면 먼저 각국의 기존 제도를 연구한 후, 이들에게 적합한 이상적인 틀을 디자인하고 이를 단계별로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아세안 국가의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축 과정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실천하려면 관련 분야에 다수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사용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아세안은 이러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이를 실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각국은 자신의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데, 실제로 이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각국이 통관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각종 관세 관련 시스템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치자. 이를 현실화하려면 각국 정부가 각종 관련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통관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국가들은 이를 수행할 자원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둘째, 아세안 국가들 간의 경제구조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이나 전체 경제 규모, 산업구조 등은 모두 서로 크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경제공동체를 추진하려면 각국이 관련 제도를 표준화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가장 선진화된 싱가포르 기준으로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이 싱가포르 수준의 제도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로 싱가포르의 통관 시스템을 모두 전산화하여 외국 상품이 세관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얼마 소요되지 않지만, 일부 국가들은 서류를 통하여 수입품의 세관 통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앞에서 설명한 베트남 호치민 시티의 티셔츠 생산자가 캄보디아의 단추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상호 협력이 존재하려면 양국 간의 단추 규격이나 품질에 대한 제도가 통일되어야 한다. 이때 양국의 경제 발전 수준 격차가 너무 클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쪽은 품질 규격이 매우 복잡하나, 다른 국가에는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발 격차이다. 아세안 국가 내에서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경제공동체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경제력 차이가 크면 이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급격한 사회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1인당 소득 56,286 달러는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1인당 소득 3,524 달러보다 15배나 많다. 이렇게 소득 격차가 클 경우 양쪽 국가의 노동력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힘들다. 즉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은 싱가포르 노동자의 임금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싱가포르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므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도시의 주거 문제와 교통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아세안이 경제공동체 구축에서 단지 ‘숙련된 노동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이마저도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비전 2025와 경제공동체의 미래

3



“Our ASEAN Economic Community by 2025 shall be highly integrated and cohesive; competitive, innovative and dynamic; with enhanced connectivity and sectoral cooperation; and a more resilient, inclusive, and people-oriented, people-centred community, integrated with the global economy.”

아세안은 2015년 경제공동체 탄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단일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관세율을 낮추었고, 각종 규제를 통일하였다. 그러나 아세안이 목표 연도인 2015년에 출범한 경제공동체는 2007년 청사진이 제시하였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었다. 아세안 역내 무역에 대한 관세가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는 부과되고 있고, 비관세장벽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을 추진하였지만 은행이나 증권사의 역내 지점 및 현지법인 설치의 경우, 아직도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역내 공정 경쟁을 추진하는 각종 법령은 아직도 일부 제정되지 않고 있다.

경제공동체 비전 2025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첫째, 2007년 발표된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이 제시한 내용에서 아직 실천되지 않은 사항의 조속한 시행이다. 청사진이 제시한 안은 매우 진보된 계획안이었기 때문에 2015년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전 2025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던 CLMV가 2018년까지 이를 추진하도록 독려한다. 둘째, 2015년 청사진에 연결된 보다 진보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2015년 청사진에 관세 인하를 강조하였다면 2025년 청사진은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강조한다. 이미 2015년 경제공동체 탄생으로 관세 인하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의 진입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원산지 표시의 확립, 서비스 교역의 확대, 은행 시장 및 보험 시장의 통합 등의 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적이 있다. 셋째, 청사진 발표 후 세계경제 변화와 주변 경제의 변화 및 그동안 아세안의 공동체 추진 경험에 비추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였다. 2008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고 2010년에는 그리스를 시작으로 유럽 금융 위기가 발생하여 세계경제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배럴당 100 달러를 상회하였던 국제 유가가 40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추진되고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진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세안의 경제통합 방향이나 속도 등에서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기초할 때 아세안 경제는 지금보다 통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경제공동체의 단결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10월 타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으로 타결 시기를 늦춤.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총론에 명시된 경제공동체의 목표는 5가지이다. 첫째, 높은 수준의 통합과 유기적인 경제^{A Highly Integrated & Cohesive Regional Economy}, 둘째,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A Competitive, Innovative & Dynamic Community} 셋째, 연계성 및 부분간 통합 강화^{An Enhanced Economic Connectivity & Sectoral Integration} 넷째,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사람중심의 공동체^{A Resilient, Inclusive & People-Oriented, People-Centred Community} 그리고 다섯째, 글로벌 아세안^{Global ASEAN}이다.

<그림 24>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2025



첫째, ‘높은 수준의 통합과 유기적인 경제’를 위해 아세안은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정하였다.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무역,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도전과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역량을 향상시킨다. 상품교역의 기존 조치를 강화하여 단일시장을 촉진하고, 비관세장벽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서비스 교역의 통일성을 심화하며, 투자·숙련노동력·기업인·자본의 중단 없는 이동을 확대한다.

둘째,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식의 생산과 실용적인 적용, 혁신 지원정책 및 디지털·그린 기술개발의 채택을 통한 건실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한다. 바람직한 지배구조, 효율적인 분쟁해결 체계 및 투명성과 대응적 규제를 촉진하며,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연계성 및 부분간 통합 강화’를 위해 아세안은 경제공동체의 효율적 이행에 핵심적인 전략부문의 지역정책과 프레임을 개선한다는 세부 목표를 정하였다.

넷째,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정하였다. 공평한 발전과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발전정책 및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인과 이해당사자의 효율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또한 소지역의 발전 협력 및 프로젝트를 강화하며,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기회를 확대한다.

다섯째, ‘글로벌 아세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대외경제관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도니 입장을 견지하며, 아세안 중심성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고, 주요 이슈의 해결시 공동의 입장을 제시하여 전 세계적 경제 사안에서의 참여를 확대한다.

<그림 25> 아세안 경제공동체 주요 회의체 및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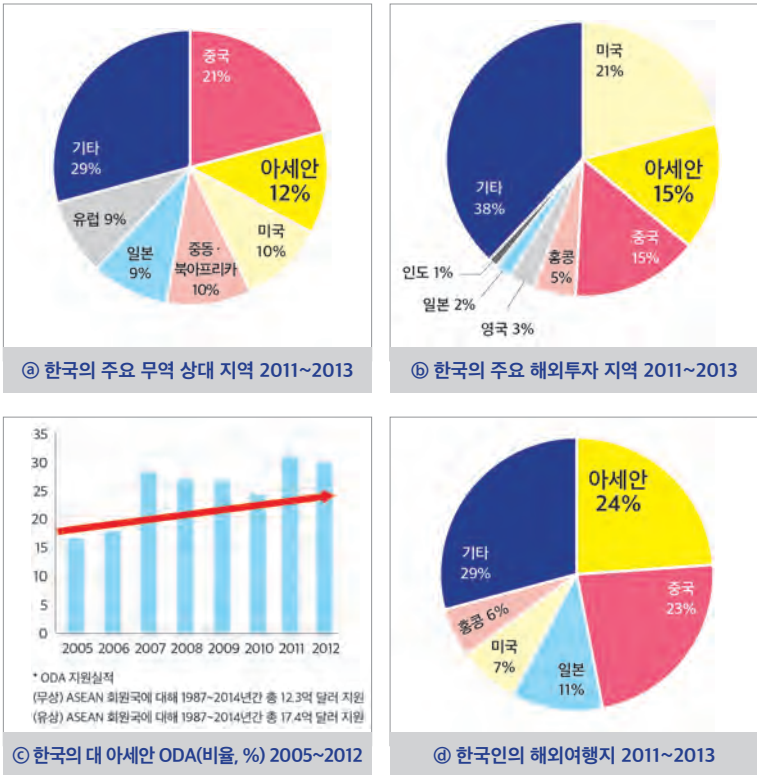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과 한국

4

아세안은 한국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면서 투자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림 26>과 같이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규모는 2011~2013년 평균 한국 전체 교역량의 12%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제2위 무역 파트너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15%를 차지하여 미국의 21%에 이은 2위의 해외 투자국이기도 하다. 더불어 한국 전체 공적개발원조(ODA)의 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ODA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인 동시에 한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방문지이다.

<그림 26> 아세안과 한국과의 관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various issues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http://keri.koreaexim.go.kr/site/main/index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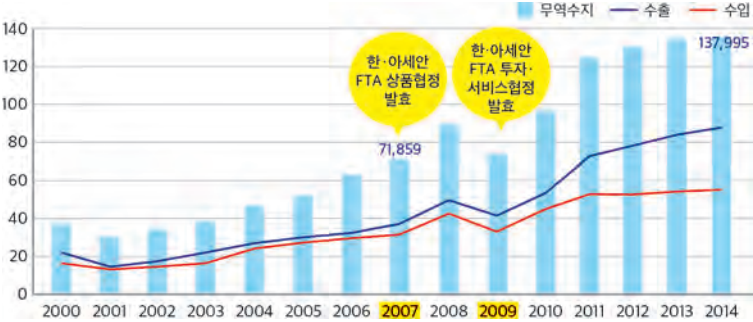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ODA 통계, <http://keri.koreaexim.go.kr/site/main/index007>

아세안과 한국의 이러한 경제 관계의 발전은 지난 20여 년간 한국 기업들과 아세안 기업들 간 협력의 결과이다. <그림 27>과 같이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2000년 한국의 대 아세안 무역은 수출 201억 달러, 수입 159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532억 달러와 441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846억 달러와 534억 달러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 주요 무역 흑자 발생 지역이다. 한국의 대 아세안 무역은 2000년부터 계속 흑자를 유지하였는데, 그 흑자 규모는 2000년 5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91억 달러, 2014년에는 31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한국에 많은 의미를 갖는다. 한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아세안 경제가 통합을 심화할 경우 한국과의 경제활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은 크게 생산과 소비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산자 입장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이다. 아세안은 값싼 노동력에 기초하여 매우 다양한 상품을 저가에 생산하여 국제시장에서 판매하는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이러한 국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한국의 노동집약적인 상품 생산 기업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산물 및 해산물 생산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제시장에서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 국내 농·해산물 생산자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그림 27> 2009년 한-아세안 FTA 체결 후 무역량 증가율(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반면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한국 기업들에게 또 다른 협력 기회도 제공한다. 국내 부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생산 기지가 아세안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원사를 사용하여 옷감과 옷을 만드는 곳이 바로 캄보디아나 미얀마이고, 국내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부품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조립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된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은 한국 기업 생산품의 매우 중요한 소비처이다. 한국 자동차들이 동남아 각국에서 움직이고, 수많은 현지인들이 국내에서 생산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제조업에 집중되었던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식품이나 소매업 같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호치민이나 자카르타의 길거리에서 한국기업의 로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아세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확보의 기회가 된다. 아세안 특정 국가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타 아세안 국가 시장에 진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제공동체 출범 이후 아세안 국가 간 장벽에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세안 전체 시장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치한 한국 기업

은 아세안 역내 다른 국가들로부터 무관세로 편리하게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반면 아세안 역내의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아세안의 특정국에서만 활동하던 기업들이 아세안 역내 전체로 기업 활동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들의 규모가 커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의 대형 은행인 메이뱅크 [Maybank](#)는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세안 역내에 보다 많은 현지 법인과 지점을 설치하고 대형화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국제시장에서 이들 아세안 은행을 만날 때 보다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세안 각국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이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별로 아세안의 발전 방향을 조사하고 한국 기업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다양한 구조를 갖는 국가로 구성되므로 각국 및 각 산업에 적합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여 접근하여야만 경제공동체의 효과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이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7년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도 추가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매년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여하여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과 다자적 혹은 양자적인 입장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과 2014년에는 각각 제주도와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더 긴밀한 경제협력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정부간 국제기구로서 2009년 출범한 한-아세안센터도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교역증대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는 한국과 아세안간 상생의 균형적 무역·투자를 활성화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아세안 무역 전시회’,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설명회’ 및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진행한다. 또한 ‘아세안 중소기업의 마케팅 역량강화 사업’, ‘중소기업 상품개발 워크숍’ 등을 통해 아세안의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잠재적 교역 파트너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8> 한-아세안센터 무역투자 사업



ASC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최경희

- 1 2009년 청사진과 진보의 구상
- 2 사례를 통해서 본 사회·문화 통합 구상 실현
- 3 비전 2025와 사회·문화공동체의 미래
- 4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탄생과 한국





ASC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최경희

2009년 청사진과 진보의 구상

1

사회·문화공동체는 아세안 현장에 나타난 아세안 공동체의 목적인 ‘사람 중심의 아세안’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아세안 10개 국가 6억 3천만명 시민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됨으로서 만들어지는 혜택이 아세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의 장이 사회·문화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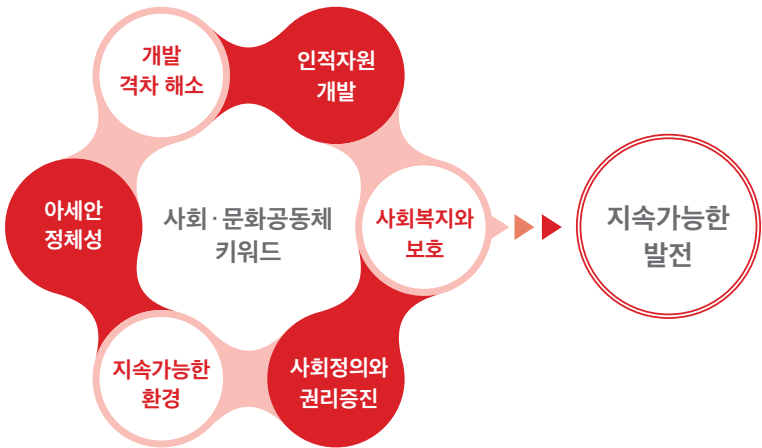
2008년 아세안 현장에 명시된 아세안 공동체의 목적 15가지 중, 사회·문화공동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천연 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한다. ② 아세안 공동체와 아세안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평생 학습, 과학, 기술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이를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③ 기회의 접근을 공정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지, 사회 정의, 그리고 아세안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④ 사람 중심적 아세안을 추구한다. 아세안 통합 과정에서 만들어진 혜택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고루 퍼지도록 한다. ⑤ 지역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아세안 정체성을 증진한다.

아세안은 2009년 채택된 사회·문화공동체 청사진에서 목표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6가지 사업 영역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적자원 개발(Human Development)이다. 아세안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사회복지와 보호(Social Welfare and Protection)이다. 빈곤을 완화하고, 사회복지와 보호를 강화하며, 마약의 피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재난 복구를 강화하며, 보건 분야를 발전시킨다. 셋째, 사회정의와 권리 증진(Social Justice and Rights)이다.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시키고, 모든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인권에 기초한 정책을 만들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환경(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유지하고 창출한다. 토양, 물, 광물, 에너지, 생물 다양성, 숲, 해안·해양자원 등 모든 천연자원의 관리와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 친화적 기술 발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구적 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한다. 다섯째, 아세안 정체성(ASEAN Identity) 구축이다. 아세안 정체성은 아세안 지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서 아세안 정체성이란 아세안 공통의 인성, 규범, 가치 그리고 신념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공동체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정신이다. 이를 위해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공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증진시킨다. 여섯째, 개발 격차 해소(Narrowing the Development Gap)이다.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싱가포르·브루나이)과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사이에 존재하는 개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처럼 사회·문화공동체 건설의 6가지 키워드는 인적자원 개발, 사회복지와 보호, 사회정의와 권리증진, 지속 가능한 환경, 아세안 정체성 그리고 개발 격차 해소이다. 이와 같은 키워드는 모두 아세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 20세기는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공동체 파괴, 전쟁과 갈등의 확산 등 자연 생태계와 사회 생태계가 지속할 수 없는 발전의 패러다임이었다. 이에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그림 29> 사회·문화공동체 키워드



사례를 통해서 본 사회·문화공동체 구상 실현

2

위에서 짚어본 사회·문화공동체 6가지 키워드를 실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자.

인적자원 개발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발표했다. HDI는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 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 국가의 인간 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HDI의 범위는 0에서 1로,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조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HDI는 매우 높음(Very High), 높음(High), 중간(Medium) 그리고 낮음(Low)의 4단계로 구분한다. 아세안 회원국의 HDI 지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 아세안 회원국 HDI 상태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싱가포르	0.896	0.900	0.901	0.902	0.912
브루나이	0.844	0.846	0.852	0.852	0.856
말레이시아	0.766	0.768	0.770	0.773	0.779
태국	0.715	0.716	0.720	0.722	0.726
인도네시아 ..	0.671	0.678	0.681	0.684	0.684
필리핀 ..	0.651	0.652	0.656	0.660	0.668
베트남 ..	0.626	0.632	0.635	0.638	0.666
캄보디아 ..	0.571	0.575	0.579	0.584	0.555
라오스 ..	0.549	0.560	0.565	0.569	0.575
미얀마 .	0.514	0.517	0.520	0.524	0.536
..... 매우 높은 단계 높은 단계 ... 중간 단계 . 낮은 단계					

출처: UNDP 홈페이지

사회·문화공동체의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단위가 아세안 교육장관회의(ASEAN Education Ministers Meeting)이다. 2009년 사회·문화공동체의 청사진에서는 교육과 관련하여 28개의 행동계획이 제시되었고, 이에 아세안 교육장관회의는 아세안 5개년 교육 사업(ASEAN 5-Year Work Plan on Education 2011~2015)을 수립하여 실천하였다. 아세안 5개년 교육 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①아세안 인식 제고, 초등 및 중등 교육의 질 강화, ③교육의 국제화 강화, ④타 분야와 교육사업간의 연계성 제고 등이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①아세안 정체성과 역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청년 교육, ②아세안 관련 분야 교육, ③아세안 학문 분야(ASEAN Studies) 발전, ④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중 교육 분야 실현, ⑤아세안 대학 네트워크

크 ASEAN University Network, AUN을 통한 역내 교육의 이동성 확보 및 교육의 국제화, ⑥ 교육과정에서 환경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내 부문 기능과 긴밀히 협조 등이다.

※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교육분야 : 2010년까지 15~24세까지 청년의 98.5%까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초등학교 교육에서 여성의 불평등 해소

지속 가능한 환경

아세안은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세분화하여 환경 정책을 실시했다. 세분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계 환경 이슈, ② 초국경 연무 오염 예방과 관리, ③ 환경 교육과 공공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증진, ④ 건전한 환경 기술 증진, ⑤ 아세안 도시에서의 삶의 질 개선, ⑥ 환경 정책과 자료의 일치, ⑦ 해변과 바다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⑧ 자연 자원과 생물 다양성의 지속 가능한 관리 증진, ⑨ 물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 ⑩ 기후변화 대응 ⑪ 지속 가능한 숲 관리 등이다.

아세안은 1977년부터 환경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선언문, 결의문, 행동 계획 등 다양한 규범과 협약을 정리해 왔다. 주요 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09년 불법 쓰레기 해양 무단 투기 감시를 위한 시스템 마련,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동남아 주요국 아세안 문화유산공원 지정 사업, 2009년 아세안 기후변화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한 아세안 실무그룹 출범, 2011년 제17차 UNFCCC 당사국총회COP17, 기후변화에 관한 아세안 성명서 발표, 2011년 아세안 생태학교 가이드라인 수립, 2012년 아세안 전역을 포괄하는 화재위험경보 시스템 개발, 2012년 생태학교의 도시 환경 관리를 통한 환경 인식 강화 사업, 2013년 아세안 물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체계 계획 개발 등이다.

아세안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환경 관련 협약은 연무협약과 메콩협약이다. 아세안은 1997년과 1998년에 발생한 연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2년에 아세안 연무협약(ASEAN Agreement on Trans-boundary Haze Pollution)을 체결했다. 필리핀을 제외한 관련 당사국이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2015년 오염 발생 당사국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연무 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메콩 개발의 두 축은 1992년 ADB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확대메콩 강개발계획(Greater Mekong Subregion Development Program, GMS)과 하류 메콩 4개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메콩강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 MRC)이다. 메콩강위원회는 1995년 메콩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에 관한 협약(메콩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아세안의 정체성과 인식 제고

아세안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은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 국가들은 다양한 종족, 언어, 종교, 관습 등이 하나로 어우러져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여왔다. 인도네시아 한 국가를 구성하는 종족만 해도 적게는 300개에서 많게는 500개 정도로 구분된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그리고 전통 샤머니즘과 애니미즘에 이르기까지 아세안에는 다양한 종교가 어우러져있다. 이러한 10개의 국가 각각의 정체성은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졌을 때도 온전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양성 속의 통합’이다.

아세안은 이러한 문화다양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아세안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세안 전통문화와 아세안 정체성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의 코드로 아세안은 ‘인형극(puppet performance)’을 정했다. 아세안 인형극 교류(ASEAN Puppets Exchange, APX)사업은 ‘하나의 아세안 문화유산(One ASEAN Heritage)’이란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코드이다. APX는 아세안 창립 50주년 기념 해인 2017년에 ‘하나의 아세안 인형극(One ASEAN puppet show)’을 만들 계획을 갖고 현재 다양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 재단’ ‘아세안 교육장관 회의’ 등 기관과 회의를 통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오고 있다. 아세안 재단은 아세안 현장에도 명시되어 있는 상설 조직으로서 1997년에 회원국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아세안 재단의 핵심적인 사업 영역은 ①아세안 인식ASEAN awareness과 정체성 증진, ②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통합 강화, ③인적자원 개발과 역량 구축, ④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와 빈곤 축소이다.

<그림 30> 아세안재단 프로젝트



사회·문화공동체는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사회·문화공동체는 1978년에 만들어진 아세안 문화정보위원회^{ASEAN Committee for Culture and Information, COCI}를 통하여 인식 제고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COCI는 아세안 청년캠프, 아세안 TV 뉴스 시상, 아세안 공연예술 시리즈, 아세안 뉴스제작 프로젝트, 아세안의 날 등을 구상하고 실행하면서 아세안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림 31> COCI 아세안 공연 예술 시리즈

아세안문화공연축제 2015 Festival of ASEAN Cultural Expressions

필리핀: 춤과 음악을 통한 필리핀의 미 2013 Philippines: Showcasing the Beauty of Philippines through Dance and Music

무형 문화유산의 다양성 2011 Diversity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브루나이의 유산 2011 Brunei's Legacy

매력적인 베트남 2010 Charming Viet Nam

말레이시아: 문화적 다양성 속의 조화 2010 Malaysia: Harmony in Cultural Diversity

황금 미얀마 속의 왕실의 미 2009 Royal Beauty of Golden Myanmar

싱가포르 쇼케이스: 문화 가로지르기 2009 Singapore Showcase: Cultural Crossing

미와 우아함의 태피스트리 2008 Tapestry of That Beauty and Grace

열대의 모자이크 인도네시아 2008 Mosaic Archipelago of Indonesia

개발 격차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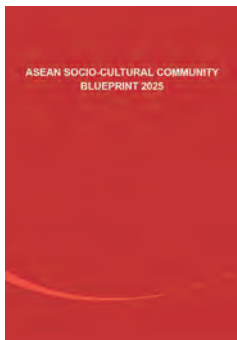
아세안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선발과 후발 국가 간 개발 격차이다.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아세안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문화공동체의 최우선 과제이다.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경제공동체의 성공과도 관련되어 있다. 경제공동체의 첫 번째 목표는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 기지 구축에 있고 이는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그리고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여기서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다. [p.54 참고](#) 10개 국가를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 기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6억 3천만 명의 아세안 시민들이 노동을 위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세안 내 경제 격차가 존재하는 한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건 불가능하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적 빈곤국인 CLMV의 경제가 성장의 아세안 내 경제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아세안 연계성 [ASEAN Connectivity](#) 사업은 의미가 크다. 아세안 공동체는 아세안 연계성 사업의 목표를 개발 격차의 축소로 두고 있다. 아세안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긴밀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세안 10개국의 들쭉날쭉한 제도들을 일치시켜 나가고, 고속도로·철도·항만·내륙수로·광케이블 등 인프라의 연계망을 높여서 공동체로서 소외된 지역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IAI 3단계 사업 계획(Work Plan)과 2025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은 2016년에 채택 예정

비전 2025와 사회·문화공동체의 미래

3



“Our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y 2025 shall be one that engages and benefits the peoples, and is inclusive, sustainable, resilient, and dynamic.”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2025는 크게 5가지를 목표로 한다. 첫째, 실행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 *Committed, Participative and Socially-Responsible Community*, 둘째, 포괄적 공동체 *Inclusive Community*, 셋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 *Sustainable Community*, 넷째, 복원력 있는 공동체 *Resilient Community*, 다섯째,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공동체 *Dynamic and Harmonious Community*이다.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2025는 과거 사회·문화공동체가 걸어온 경험과 배경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에서 개도국 발전 전략에 대해 제기되어 왔던 비판적 견해들을 충분히 수용하여 재구성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실행적이고, 참여적이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공동체’의 의미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실행적’은 사회·문화공동체의 실천이 아세안 시민에게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는 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원리에 기초한다. 둘째, ‘참여적’은 사회·문화공동체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열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차원의 조직, 학계, 민간 협력체, 정부 및 비정부 조직,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하여 사회·문화공동체를 움직여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셋째, ‘사회적인 책임감’은 이러한 모든 사회·문화공동체의 행동이 아세안 시민의 역량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아세안이 그동안 상층 지도자 및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적 방향으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2>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비전 2025



‘포괄적 공동체’의 의미는 첫째, 아세안 시민을 위한 기회 증진, 여성, 아동, 청년, 노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수 종족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이다. 둘째, 복지, 사회 보호, 여성 역량 강화, 성 평등, 인권 보호와 증진, 기회 균등, 빈곤 해소, 보건, 품위 있는 일자리, 교육과 정보 등과 같은 이슈들이 경제공동체의 포괄적 성장 의제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세부적 실천방향에는 ① 모든 차별을 제거, ②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③ 인권 보호와 증진 등이 있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의미는 첫째, 사회 변화와 경제 발전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균형적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경우에서 사람들의 필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부적 실천 방향에는 ①생물 다양성과 자연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 ②친환경적인 도시 만들기, ③지속 가능한 기후 환경 만들기, ④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이 있다.

‘복원력 있는 공동체’의 의미는 첫째, 안보와 통합 정책, 역량 강화와 제도 구축, 재난 위험 대비, 인도적 지원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강화이다. 둘째, 현재의 도전과 새롭게 출현할 위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다. 실천방향에는 ①재난 복원력 만들기 ②생물학적, 화학적, 방사선-핵 그리고 새로운 위협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안전지대로서 아세안 만들기 ③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아세안 만들기 ④모든 이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 ⑤최적의 금융 시스템, 식량, 물, 에너지, 사회 안전망 구축하기 ⑥마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세안 만들기 등이 있다.

‘역동적이며 조화로운 공동체’의 의미는 첫째,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며, 세계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일원이 되는, 사람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적응 가능하며 혁신적인 기업가적 정책과 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세부적 실천방향에는 ①개방적이고 적응 가능한 아세안 만들기, ②창의적, 혁신적 그리고 책임감 있는 아세안 만들기, ③기업가 정신의 문화 만들기 등이 있다.

사회·문화공동체 2025의 비전은 2009년에 보여준 사회·문화공동체와는 사뭇 다른 언어와 개념들이 배치되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원력 있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다. 향후 10년 간 전 세계가 매우 다른 환경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날로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일상적인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이고, 이에 대비해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그림 3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주요 회의체 및 구성체계



아세안 공동체는 역내 지역 협력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폐쇄적인 협력체가 아닌 세계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협력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소통의 구체적인 예가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이다. 2007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가 채택됐고, 이어 2009년 3월 국제기구의 형태로 한-아세안센터가 출범하였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센터는 한국에서 아세안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센터의 목적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 증대, 투자 촉진, 관광 활성화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것이다. 한-아세안센터의 관광 활성화 및 문화·인적 교류 사업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공동체의 사업과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아세안센터의 문화 관광과 인적 교류 사업 중에서 ‘아세안 축제’, ‘한-아세안 관광 진흥 워크숍’,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아세안 관광인력 개발 프로그램’ 등은 사회·문화공동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세안 정체성 구축 및 인식 제고 사업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림 34> 한-아세안센터 문화관광 및 아세안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



한-아세안센터 외에도 한국은 사회·문화공동체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은 한-아세안 사이버대학ACU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세안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인 ‘아세안 재단ASEAN Foundation’에 원조국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재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재난 관리 지원 업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아울러 한-아세안 협력기금 운영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간 개발협력, 기술이전, 인적지원개발, 문화, 학술교류, 청년교류 등에 걸쳐 양측의 협의하에 다양한 사회·문화공동체 관련 협력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

- 1990~2014년간 약 6,700만 달러 협력기금 제공
- 2015년 부터 공여액을 연간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증액

2017년은 ‘한-아세안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이 개원한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국민 간 사회·문화적 소통과 협력은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

최경희

2015년 12월 31일, 아세안 공동체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과 동시에 아세안 공동체는 2025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또 하나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여정을 통해 아세안은 1967년부터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 공동체를 향한 아세안의 도전은 세계의 큰 관심사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아세안 공동체는 ‘아시아의 꿈’이다.

아세안 공동체는 왜 아시아의 꿈인가. 아세안 공동체는 20세기의 부정적인 유산을 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지향과 실천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는 이념에 기초한 체제 간 대립과 냉전이 지속된 시대였다. 21세기인 지금, 여전히 아시아의 여러 지역과 국가들은 이념 간 대립과 분열이 존재하는 20세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유산을 극복할 힘과 원리가 아세안 공동체에 있다. 1967년 아세안의 시작과 2015년 아세안 공동체의 출범에서 드러나는 아세안의 태도, 방법, 실천의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아세안 현장이 발효되고 아세안 공동체의 첫 번째 청사진이 제시된지 약 8년의 시간이 지났다. 아세안 공동체는 2015년 출범하였지만 아직

“ASEAN Community at the Heart of Asia”

이전 청사진의 내용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은 달성해야 할 과제들을 새롭게 정비하여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제시했다. 아세안 비전 2025는 지금의 전 세계적 정치·경제 상황이 무엇인지, 기후 변화와 같은 지구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있어 지역 협력에 대한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의 발전은 더디지만 함께 나아가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실천 과정에 의미가 있다.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과 정치·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고 희망과 화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천의 예가 아세안 공동체이다. 세계가 아세안 공동체에 주목하는 이유다.

한-아세안 관계 발전 연혁





참고문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5. 「주요국제문제분석」 41호, 2015년
- 김경동. 2011.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체계의식,” 『아시아리뷰』 제1권 제1호.
- 김형중. 2014.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의 이슈와 전망” 『아세안 공동체 출범과 동남아연구의 새로운 지평』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9-22쪽.
- 대한민국 외교부. 2015. 「아세안 개황」
- 박빈순. 2013. “아세안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23권 2호.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2014.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별 접근』 서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엄은희. 2014.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건설과 환경분야 현황과 시사점,”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 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별 접근』 서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윤진표. 2012. “ASEAN의 외교정책” 『현대외교정책론』 서울:명인문화사. 419-450.
- 윤진표. 2015. “한국의 대 동남아 외교전략과 정책분야별 방안에 관한 구상” 『국가와 정치』 21집.
- 이재현. 2012. “전환기 아세안의 생존전략: 현실주의와 제도주의의 중층적 적용과 그 한계” 『동아연구』 31집 1호.
- 이충열. “아세안 경제공동체 탄생에 대한 기대와 현실,” 『동남아시아연구』 24권 3호 2014년
- 이충열.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가능성,” 『동남아시아연구』 21권 3호, 2011년
- 전제성. 2014. “아세안 경제공동체 건설과 이주노동분야 현황과 시사점,”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 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별 접근』. 서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최경희. 2014.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건설과 평화체제 구축의 현황과 시사점,” 『2015 아세안 공동체 건설 현황과 전망: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공동체별 접근』. 서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센터.
- 한국무역협회. 2015. 「Trade Brief」 67호, 2015년
- 한국동남아연구소. 2015. 『변화하는 한-아세안 관계: 새로운 교류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2015 ASEAN Forum 발표집.
- 한-아세안센터. 2014. 『4C로 이해하는 아세안』. 서울: 한-아세안센터.
- Acharya, Amitav. 2014.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New York: Routledge.
- ADB. The Road to ASEAN Financial Integration, March, 2013
- ADB. ASEAN 2030: Toward a Borderless Economic Community, July, 2014.
- ASEAN and World Bank.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Report, 2013.

[ASEAN Foundation](#). 2015. "Supporting The ASEAN Community 2015: Think, Feel and #BeASEAN," Annual Report 2014.

[ASEAN](#). 2009. 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Blueprint.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09.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09.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2. ASEAN Roadmap for the Attain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3. ASEAN State of Education Report 2013.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3. Mid-Term Review of the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09-2015).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5. ASEAN Economic Community at a Glance.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5. ASEAN Socio-Cultural Community Blueprint 2025.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5. ASEAN 2025: Forging Ahead Together.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4. ASEAN Economic Community Chartbook 2014.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5.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14. Jakarta: ASEAN Secretariat.

[ASEAN](#). 2013. ASEAN Integration in Services. Jakarta: ASEAN Secretariat.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2015.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2015.

[IMF](#). 2015.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verino, Rodolfo C.](#) 2006. Southeast Asia In Search of An ASEAN Community: Insight from the former ASEAN Secretary-General. Singapore: ISEAS.

[Weatherbee, Donald](#). 2009.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The Struggle for Autonom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아시아의 꿈, 아세안 공동체를 말하다

ASEAN Community at the Heart of Asia

퍼낸날	2016년 2월 18일
퍼낸곳	한-아세안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전화	02. 2287. 1140
팩스	02. 2287. 1160
이메일	info@aseankorea.org
홈페이지	www.aseankorea.org

디자인	Linear Collective
인쇄	알래스카인디고
ISBN	979-11-953832-2-1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0개 회원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출범한 국제기구입니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된 '한-아세안 센터 설립 양해각서'가 2008년 12월 발효됨에 따라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되었고,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을 맞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ww.aseankorea.org

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1967년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통해 아세안은 2015년 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출범하는 동시에,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선포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아세안은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 동아시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주도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인구 6.3억명, 국민총생산(GDP) 2.6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권의 탄생을 예고하며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위상과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www.asean.org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9 791195 383221

ISBN 979-11-953832-2-1